

또 한 편의 '중생 걱정'

달마어록

김호귀 편역 | 정우서적 펴냄 | 1만원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의 어록이다. 선(禪)의 시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이후 인도의 역대 조사들을 통하여 부처님의 깨침인 정법안장이 면면히 계승되면서 보리달마에 이르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달마의 어록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중국의 둔황 지방에서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서 달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최고(最古)의 문헌이다. 제1장에서는 보리달마의 선법과 그 특징, 보리달마와 중국의 선종, 보리달마 선법의 전승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선이 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래되고 나서부터는 그 행적(行的)인 문화성과 결부되어 일찍이 인도에서 볼 수 없었던 특색을 발휘하게 된다. 중국에 있어서 처음 독립적인 한 계통을 이룬 선종은 보리달마의 서래(西來)에서 기인한다. 물론 달마가 서래한 당시의 교학계는 이와 같은 특이한 선자(禪者)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제2장에서는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묻는다. 여래란 무엇입니까. 답한다.

진어를 깨쳐서 중생세계에 대응하는 것을 여래라 말한다. 묻는다. 불이란 무엇입니까. 답한다. 여법하게 깨쳤지만 깨진 것에 대하여 깨졌다는 상이 없으므로 불이라 말한다. 묻는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답한다. 마음이 여법하여 발생하지도 않고 마음이 여법하여 소멸하지도 않으므로 법이라 말한다. 묻는다. 승이란 무엇입니까. 답한다. 여법하게 화합하므로 승이라 말한다." 제3장에서는 (소실육문집)에는 '안심법문', '오성론', '혈맥론을 수록하여 또 다른 달마의 범어를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보리달마는 중국선의 조조다. 달마가 전승한 선법을 조사선(祖師禪)이라고 한다. 조사선의 가풍은 달마조사로부터 유래한 가르침이란 뜻으로서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붓다와 동일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것을 자각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내세운다. 따라서 여기서 소개하는 달마의 가르침은 지극히 일상적이면서 그 일상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는 가르침인 줄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달마의 민낯을 알아보고 그 가르침을 읽어내는 안목이다."고 했다.

책에서 보리달마는 "내가 일부러 이 땅을 찾아온 것은 전법하여 중생을 건지기 위한 이다."고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뜻이나 보리달마가 동쪽을 찾아간 이유나 모두 '중생 걱정'이었다. 중생을 걱정하는 보리달마의 어록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서재탐방 |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불교는 마음대로 안되는 '마음 해결'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72)는 명강사다. 특히 스님들에게 인기가 높다. 불교와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수업을 잘하기 때문이다. 1980~1990년대 도법 스님(조계종 화엄위원장), 학담 스님 등 교계의 웅남한 스님까지도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강의를 들었을 정도로 그의 강의는 유명했다.

이 교수는 또 논쟁이 많은 학계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학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최근까지 불교학회에 참석한 그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논쟁이 벌어질 때도 상대를 인신공격하지 않고 부드럽하면서도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만큼 이 교수는 온화한 인격자로 실리에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려는 모범을 보여 동료학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다.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은 그의 삶을 대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대전 충남대 앞에 살고 있는 이평래 교수를 찾았다.

이 교수는 방 2칸을 서재로 쓰고 있다. 한 방은 모두 책을 쌓아놓는 서재로, 나머지 한 곳은 원고 작업과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다. 5000여 권을 갖고 있는 그의 서재에서 금방 눈에 띄는 책이 있었다. 독일 동양철학자 막스 뮐러(Max Muller)가 편집 출판한 <동방성서(The Sacred Books of the East, 1879)> 전집 50권이다. <동방성서>는 첫 권 우파니샤드를 시작으로 불교의 경전과 율장, 중국의 <사서삼경>, 힌두교의 여러 성전들을 번역해서 총 50권으로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펴냈다.

이 밖에 일본에서 불교를 공부한 학자답게 그의 서재에는 일본어로 된 <신수대장경> <대승기신론> 등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라도 입실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전쟁으로 혼란스러워했던 시기 속에서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곧바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눈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겨우 중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이 교수는 학비가 들지 않는 전주 사범학교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그는 철학개론 수업을 들으며 소연하우어, 니체, 칼 야스퍼스, 하이데거 등 실존철학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한계상황에 반응하는 의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은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했다.

"불교에서 하는 참선 일주일만 하면 서양에서 이야기 하는 불안, 실존철학에 나오는 사유는 모두 해결된다." 서양철학서를 탐독하던 이 교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도서관으로 가 불교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 이 교수가 처음 접한 것이 <금강경> <반야심경>이었다. 이 교수는 림비니회에 가입해 불교운동을 하며 헤르만 헤세(<싯다르타>)를 비롯해 불교 수필책을 다치는대로 읽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이 교수는 교편을 잡고 있었지만 불교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친구들의 권유로 서울에서 가정교사를 하며 학비를 마련한 그는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그래도 여전히 가난했던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막노동 일과 학원강사로 생계를 꾸렸다. 이때 이 교수는 <대승기신론>에 흥미



이평래 교수는 공부를 하면서 독서도 꾸준히 한다. 한 번 책을 읽으면 끝까지 읽는 그는 현재 <최무영의 교수의 물리학 강의>를 읽고 있다.

<동방성서> 50권 등 5000권 소장 림비니회 가입 불서 읽으며 불교운동 日 유학 후 충남대서 '불교개론' 첫 수업 현재 <대승기신론> 주해서 작업 중

를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중경아독으로 불교공부에 매진하던 그는 동국대와 일본 고마자와 대학이 재배결연을 맺고 해외장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37살에 곧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고마자와 대학에는 여래장 연구의 일인자인 다카사키 직기도(高崎直道) 동경대 교수가 출강하고 있었다.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영어 한문 일본어에 능통한 다카사키의 여래장 삼부경 강의는 이 교수의 귀에 속속 들어왔다. 이 교수는 다카사키 교수의 지원 덕분에 '신라불교 여래장 사상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스승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1981년 충남대 철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평래 교수는 '불교개론'을 첫 수업으로 가르쳤다. "마음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마음대로 안된다는 것.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불교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명료하게 다가왔고 개신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번은 동학사 강주 스님이 이 교수의 집에 찾아와 '인도불교학'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 요청에 응하자 이번에는 운문사의 명성 스님이 강의를 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수는 학기 중에는 대학에서, 방학에는 동학사 운문사 해인사 봉선사 금산사 송광사 등 학승이 모인 곳에서 <대승기신론> <법화경> 등

을 강의했다. 1984년 금산사에서 이 교수가 강의한 <대승기신론> 녹취테이프는 아직도 승가에서 공유될 정도로 유명한 강의가 됐다.

2007년 충남대 철학과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그는 여전히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길상사에서는 불교요가를 가르치고 그의 자택에서는 1991년부터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 바르게 읽기 운동'과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 보급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으로 중역(重譯)된 경전대신 원어로 쓰인 경전을 통해 불교를 제대로 알자는 뜻에서다.

이 교수는 2004년 한국불교학회장으로 선임됐다. 1973년에 창립된 한국불교학회에서 동국대가 아닌 외부 학교 교수가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평래 교수가 처음이다. 2008년까지 연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그는 한국불교학회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2005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받기 위해 매일 100만 원 씩 모연을 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이 교수는 <대승기신론> 원문을 한글로 번역해 주석과 해설을 달고 있다. 1/3정도 진행된 상태다.

"<대승기신론> 주해서를 펴내고 나서 <여래장 삼부경> 주석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저술을 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려면 체력도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요가와 108배를 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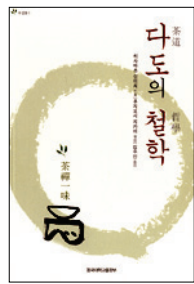
전쟁과 가난의 역경 속에서도 오로지 불교학을 공부하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해온 이평래 교수. 그가 학자로서 교수로서 보여주는 모범적인 면모는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일본의 현대판 다경(茶經)

다도의 철학

히사마츠 신이치 지음 | 김수인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펴냄 | 1만2천원



차 문화의 근간이 선 불교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형식에 치우친 일본 다도문화를 비판하는 일본의 현대판 다경(茶經) <다도의 철학>이 번역되어 나왔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차 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차에 대한 관심에 비해 차 문화의 사상적 근거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선과 차에 대한 깊은 사유를 통하여 독특한 다도철학을 형성한 일본의 대표적인 다인이다. 그리고 역사인 수인 스님 또한 우리나라 차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다인이다. 저자는 다도 문화를 본질적으로 종교의 화현이라고

보고 있다. 그 종교는 불교이고, 그 중에서 선불교다. 선은 모든 형상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형상의 부정이 선의 출발이며, 선에서 말하는 무상(無常)의 선이 인간의 진실한 본래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선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형상이 없는 인간, 즉 '무상의 자기'를 자각하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무상의 자각이 형상화 되어 나타난 것이 다도(茶道)라고 설명하고 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다도론>에서는 형식에 치우쳐 새로운 다도 문화를 창조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현재 일본의 다도 문화를 통렬히 비판하고, 무상의 자각을 추구하는 다도 본영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두 번째 <다도의 잡언>에는 다도 본영의 깨달음에서 출발한 다도철학의 영역을 15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 사상과 문화를 다루고 있다.

수인 스님은 이번 책이 우리나라 다인들에게 각성과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적 다도철학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생앤파크스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탄허록	탄허	휴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친절한 간혹선	월암	담앤북스
7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클릭미디어
8	격정말고 기도하라	법안	은행나무
9	경허	일지	민족사
10	당신은 행복인가	달라이 라마	문화이슈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 3672-7181

www.minjoksa.org

지치고 힘겨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시골벽적인 마음이어
지금,
잠시,
쉬었다
가져라.

행복한 마음휴식...
행복한 마음휴식...
행복한 마음휴식...

지치고 힘겨운
당신에게
복잡하고 빠르게 뛰는
당신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합니다.

석지현 지음 | 424쪽 | 15,000원
양장(146x185mm)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1732-2403~4 Fax. 021739-7656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동업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www.minjoksa.org

경허선사가 살아 있다면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버트 서먼 교수의 내한 인터뷰 중에서)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만공이 스승 경허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술이 있으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합니다만, 스님은 왜 그렇게 술을 드시는 겁니까?’ 경허는 만공의 말꼬리를 끊으며 말했다. ‘허 참, 자네는 아주 도가 높네 그려. 나 같으면 술을 먹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밀씨를 구해서 잘 키워 술을 빚어서 마시고 또 마시겠네. 또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파씨를 구해서 잘 가꾸어서 파전을 먹고 또 먹겠네.’”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경허

글·일지 | 352쪽 | 13,000원
소프트양장(150x208mm)

민족사